『영미연구』
제41집 (2017): 3-28

“당신의 혀를 어떻게 좀 해야겠어요”: 『국경선』, 『여전사』, 그리고 『포』에 나타난 혀/목소리의 문제

김 경 숙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탈식민문학 담론 내에서 서벌턴의 목소리가 갖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앙살두아의 『국경선』 킹스턴의 『여전사』 그리고 쿠체의 『포』에서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국경선』을 통하여 혀가 단순한 신체기관을 넘어서서 인종적/문화적 주체성과 실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와 직결됨을 살펴보고, 『여전사』를 통하여 자신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와 타자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번역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무인도의 실체를 담고 있는 『포』의 프라이데이를 통하여 침묵이 혀를 통한 목소리만큼 중요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이렇듯 혀/목소리에 대해 여러 텍스트가 제시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검토함으로써 탈식민문학 담론에 있어서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주제인 서벌턴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주제어: 혀, 목소리, 침묵, 서벌턴, 탈식민주의

I. 들어가며

> 난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떻게 야생의 혀를 훈련시켜 얌전히 길들이지? 어떻게 혀에 고삐와 안장을 채우지? 어떻게 혀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B* 75)

> 너를 혀짤배기로 만들지 않으려고 내가 잘랐지.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 네 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야. (*W* 190)

> "어쩌면 무어인 노예주들은 혀를 진미라 여겼는지 모르지," 그[크루소]가 말했다. "아니면 밤낮없이 계속되는 프라이데이의 슬픔에 찬 울음소리가 지겨웠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들은 프라이데이 자신이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어쩌다 잡혀오게 됐는지 따위의 이야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잡아들인 모든 식인종의 혀를 잘라 벌을 줬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겠소?" (*F* 23)

멕시코, 중국, 남아프리카 등 위에 인용한 텍스트를 쓴 저자들의 출생국은 각각 다르지만 흥미롭게도 작품의 중심에는 모두 "혀"의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인용은 앙살두아(Gloria Anzaldúa)의 『국경선』(*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에서 발췌한 것으로, 야생마는 안장을 얹고 굴레를 씌워 길들일 수 있지만 영어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야생의" 혀는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은 킹스턴(Maxine Hong Kingston)의 『여전사』(*The Woman Warrior: Memoirs of a Girlhood among Ghosts*)의 일부분으로, 유창한 영어발음을 구사할 수 있도록 화자의 어머니가 화자의 혀의 소대를 잘라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쿠체(J. M. Coetzee)의 『포』(*Foe*)에서 발췌한 단락에서는 크루소(Cruso)가 수잔(Susan Barton)에게 서인도제도의 노예 프라이데이(Friday)의 혀가 잘린 이유에 대한 여러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위의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혀의 의미는 단순히 신체기관으로서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피부나 머리카락의 색처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언어구사력은 인종 차

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자연스럽지 않은 언어구사력 — 앙살두아의 비유를 따르자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혀 — 은 "타자"라는 낙인을 찍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에 혀는 인종 담론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며, 이는 다시 목소리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권력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탈식민문학 담론 내에서 혀 혹은 목소리가 갖는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앙살두아의 『국경선』 킹스턴의 『여전사』 그리고 쿠체의 『포』에서 혀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위의 세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세 작품 모두 서벌턴의 혀/목소리의 문제를 다루되, 서로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혀/목소리에 대해 여러 텍스트가 제시하는 서로 다른 관점들을 검토하는 과정은 탈식민문학 담론에 있어서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주제인 서벌턴(subaltern)의 문제를 우회적이나마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서벌턴, 침묵 그리고 목소리

> 서벌턴은 말할 수 없다. 경건한 항목으로서의 "여성"이 포함된 세계적인 세탁 목록에 미덕이란 없다. 재현은 시들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여성 지식인에게는 절대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될 특수한 임무가 있다. (Spivak, "Can" 308)

탈식민문학이론에 있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해 온 스피박(Gayatri Spivak)은 자신의 영향력 있는 논문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에서 "여성으로서 서벌턴 주체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307)고 단언한다. 여성으로서 서벌턴은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스피박은 여성 지식인들에게 "결코 저버릴 수 없는 임무"를 부여하는데, 물론 이는 말할 수 없는 서벌턴과 서벌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1세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의미한다. 스피박은 억압받는 자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는 추측 하에 타자를 위해 말하는 책임을 저버린 푸코와 들뢰즈에 대해 맹렬히 비난한다. 스피박에게 있어서 서벌턴을 대신하여 말

하는 정치적/윤리적 책임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패리(Benita Parry)는 자신의 논문 “최근 식민 담론 이론에 나타난 문제점”(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에서 이러한 스피박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다: “스피박의 박식한 논문에도 빈틈이 있는데 이 빈틈은 원주민을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절대 권력을 헤게모니 담론에 부여하는 이론에서 유래한다”(34). 패리는 스피박의 이론이 개인의 실천가능성(agency)보다는 주체를 구성하는 담론의 힘을 맹신하는 후기구조주의 흐름 속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서벌턴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저항을 해오고 있는데 이들을 일방적으로 벙어리로 만든 것은 오히려 스피박과 같은 “제3세계 출신의 이론가들의 과장된 이론”의 탓이며, 이는 서벌턴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이론가들이 가로채기 위함이라고 패리는 역설한다(35).

샤피(Jenny Sharpe)는 “식민 저항의 비유”(Figures of Colonial Resistance)[1]에서 오히려 스피박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며 스피박에 대한 패리의 비난을 다시 공격한다: “사실상 패리는 영국의 문명화 사명이 갖는 주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재생산하고 있다 — 이는 교육된 식민주체를 원주민으로 대체하는 환유적 작업이다”(139). 다시 말해, 패리가 서벌턴으로 간주하는 원주민들이 사실은 이미 교화된 식민 주체 — 혹은 바바(Homi Bhabha)의 용어를 빌리자면 혼종화된 주체 — 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피박에 대한 패리의 공격은 오히려 실제 원주민 서벌턴을 이중으로 침묵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샤피는 주장한다. 스피박과 샤피 모두에게 있어 서벌턴은 “환원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복원불가능한”(152) 존재이다.

스피박과 샤피, 그리고 패리가 탈식민주의와 서벌턴에 대하여 견지하는 정치적 입장에는 매우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들은 고도의 학문적 용어와 이론으로 무장한 채 서벌턴이라는 다소 모호한 계층을 실제 삶과 저항의 영역에서 축출해내는 작업을 공모하고 있는 듯하다. 겉으로는 서벌턴을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 암묵적으로는 순수하고 원시적인 본국 문화의 지킴이로서 “서벌턴” 계층에 대한 매우 동질화된 개념을 미리 상정하고 있다. 식민화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원주민으로서 서벌턴을 상정하였을 때, 이에 반하여 여러 문화의 영향을 두루 섭렵한 자신들의 혼종화된 주체성은 비로소 확고해질 수 있다. 식민화 논리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이유로 그토록 비판해마지 않던 마니교도적 이항대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이론 속에 오롯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벌턴의 존재는 이들의 혼종적 정체성과 이론을 부각시켜주는 말이 없는 —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 매우 유용한 전제로 기꺼이 활용된다.

이렇듯 스피박과 패리, 그리고 샤피는 학문적 담론에 진입할 수 없는 서벌턴을 대변하는 "지식인의 책무"를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과연 서벌턴이 스스로를 재현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짊어지고자 하는 지식인의 책무가 식민화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어 온 "백인의 책무"(the white man's burden)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어쩌면 이들의 노력은 실제 세계 정치 속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차별에 대하여 침묵해 왔다는 비판에 맞서 탈식민주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서벌턴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이러한 이론들은 미국과 유럽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 3세계 인력을 아웃소싱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과 얼마나 다른가? 불우한 제 3세계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인도주의적 대의명분은 아웃소싱으로 인하여 제 1세계가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이윤 앞에 퇴색한다.

이렇듯 서벌턴의 문제는 탈식민주의 이론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딜레마로 남는데, 서벌턴의 문제가 결국은 타인을 대변하는 행위 속에 필연적으로 내포되는 윤리적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비평가 알코프(Linda Martín Alcoff)는 자신의 논문 "타자를 대변하는 문제"(The Problem of Speaking for Others)에서 타인을 대변하는 행위가 내포하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2] 서벌턴을 대변하는 행위가 결국 그들의 침묵을 영속화할 수 있기에 누군가를 대변한다는 것은 "거만하고, 헛되고, 비윤리적이고, 정치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알코프는 주장한다(97-8). 또한 타자를 대변하는 일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개인이 말하는 위치는 자신이 말하는 의미와 진실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초월하는 능력을 취할 수 없기"(Alcoff 98) 때문

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대변하는 자와 대변되는 자의 사회적 계층이 다를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왜냐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대변하는 자 자신이 속하는 계층의 이해관계 혹은 욕망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권층이 소외계층을 위해 말을 하는 행위는 실제적으로는 대변되는 자들의 억압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는 것이 알코프의 설명이다(99). 지식인이 서벌턴을 대변하는 행위 역시 두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차이를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알코프는 누군가를 대변하기 전에 그것이 억압된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 냉철하게 자문해 봐야 한다고 충고한다(116). 그러나 외견상 매우 인도적으로 보이는 알코프의 충고도 결국에는 대변하는 자와 대변되는 자 사이의 계층의 차이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기에 한계가 있다. 결국 대변하는 행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은 권력은 말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인들이 서벌턴을 대변하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서벌턴은 스스로 말하려는 의지가 무력화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침묵을 영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서벌턴 계층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도록 방관하는 것 역시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침묵이 오히려 저항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서벌턴을 대변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와그너(Roi Wagner)는 자신의 논문 "주체 앞에서 저항으로서의 침묵, 혹은 서벌턴은 침묵할 수 있는가?"(Silence as Resistance before the Subject, or Could the Subaltern Remain Silent?)에서 서벌턴의 침묵이 오히려 저항으로 비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일례로, 불법체류의 소지가 다분한 외국인을 체포해도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그를 처벌하거나 본국으로 송환할 방법은 없다(99-100). 이런 경우의 실현가능성이나 실질적 이득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침묵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우며, 와그너의 주장은 서벌턴 대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이렇듯 서벌턴과 목소리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서벌턴과 그들의 목소리에

대해 지금까지 검토한 이론들이 제시해준 통찰력은 수용하되, 그 한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앙살두아, 킹스턴, 그리고 쿠체의 문학 텍스트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서벌턴의 혀 혹은 목소리가 함의하는 바를 다층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I. 『국경선』: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야생의 혀

> 그러니, 만일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싶다면, 나의 언어에 대해 나쁘게 말하라. 인종적 정체성은 언어적 정체성과 쌍둥이를 이룬다 — 나는 나의 언어이다. 내가 언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없다. (*B* 81)

앙살두아에게 있어 언어는 곧 그녀 자신이다. 멕시칸으로서 그녀가 지닌 다소 억센 악센트는 그녀의 인종적 정체성에 다름 아니기에 그녀는 자신의 "야생적인" 혀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백인 중심의 미국적 아이덴티티로의 동화를 위하여 철저한 언어교육을 강행한 미국의 정책에 맞서 앙살두아는 『국경선』에 수록된 다섯 번째 이야기 "야생의 혀 길들이는 방법"(How to Tame a Wild Tongue)에서 언어는 인종적/문화적 정체성과 직결된다고 말한다. 이렇듯 "혀"는 이 챕터의 중심을 차지하며 챕터의 대부분은 앙살두아가 학창시절 겪은 언어교육의 에피소드로 채워진다.

5장 시작 부분에서 앙살두아가 치과치료를 받던 중 그녀의 혀가 솜뭉치와 드릴을 계속적으로 밀어내자 화가 난 치과의사는 치아의 치료를 위해 그녀의 다소 "야생적인" 혀를 얌전히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당신의 혀를 어떻게 좀 해야겠어요"(*B* 75). 이러한 치과의사의 선언은 앙살두아에게 표준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인종적 소수자들에게 언어교육을 강행해온 미국의 언어정책을 상기시킨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야생의 혀를 훈련시켜 얌전히 길들이지? 어떻게 혀에 고삐와 안장을 채우지? 어떻게 혀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B* 75) 앙살두아는 "한 민족에게서 언어를 빼앗는 것이 전쟁보다 덜 폭력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미스(Ray Gwyn Smith)

의 말을 인용하며 언어의 중요성에 천착한다. 학창 시절 쉬는 시간에 스페인어를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당한 기억은 앙살두아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방법을 말했을 뿐인데, 이를 말대답으로 간주하여 앙살두아를 체벌한 선생님은 표준 영어 발음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가 미국인이 되고 싶으면, '미국말'을 해. 그게 싫다면, 네가 속하는 멕시코로 돌아가던지"(*B* 75). 미국에 머무는 한 모두가 동일한 언어를 구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스페인어를 쓰려거든 미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선생님의 논리인데, 이는 당시 영어 이외의 타 언어 사용을 불허했던 미국의 엄격한 언어 교육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다.

캠벨(Neil Campbell)과 키언(Alasdair Kean)은 자신들의 공저 『미국 문화 연구』(*American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to American Culture*)에서 이민자들을 "미국화"하고 이들에게 "미국적 아이덴티티"를 함양하기 위해 언어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언급한다: "영어는 통합된 문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토대였다"(61). 비평가 아나톨(Giselle Liza Anatol) 역시 아메리카 대륙의 이민 정책에 있어 언어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음을 지적한다(939). 이는 언어가 동화(assimilation)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식민 주체에게 있어, 소위 '표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는 것은 백인 지배자와 그들의 유럽 문화를 보다 면밀히 닮는다는 것은 의미했다"(Anatol 941). 반면에 크레올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열등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오인되어 왔다(Anatol 941).

이렇듯 엄격한 언어정책 가운데 자행되는 언어에 대한 폭력은 앙살두아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계속된다. 화자가 대학에 다닐 때 화자를 포함한 치카노 학생들은 모두 어학 수업을 두 강좌나 들어야 했다. 이유는 이들의 악센트를 제거한다는 목적이다(76). 그러나 앙살두아는 이러한 강제적 언어교육은 헌법 제 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야생적인 혀는 결코 길들여질 수 없다고 단언한다: "검열의 의도로 누군가의 표현 방식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 제 1조에 대한 위반이다. [. . .] 야생의 혀는 길들여질 수 없다. 단지 잘려나갈 수 있을 뿐이다"(*B* 76). 비평가 허레라-소벡(María Herrera-Sobek) 역시 앙살두아가 성장한 지역(Rio Grande Village)의 학교들은 스페인어 박멸을 교육

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267-8). 그녀에 따르면 수업 중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언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 미국에서 성장한 치카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페인어를 잊도록 한 것은 명백한 "언어 테러리즘"이다(Herrera-Sobek 269).

그러나 이는 비단 스페인어를 구사한다는 이유에서 앙살두아에게 가해진 폭력만은 아니다. 여성으로서 그녀가 겪어야만 했던 언어폭력의 측면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앙살두아는 "침묵의 전통 극복하기"(Overcoming the Tradition of Silence)라는 소제목의 섹션에서 화자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을 다시 되짚는다: "파리는 꼭 다문 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B* 76). 그러나 남성의 혀를 제어하는 표현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속담들은 여성의 침묵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세뇌교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앙살두아는 언어란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단언한다: "우리는 남성 복수형에 의해 여성형을 빼앗겼다. 언어는 남성의 담론이다"(*B* 76). 이러한 남성위주의 언어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혀는 침묵을 지키도록 훈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메말라 갔다. 황량함이 우리 혀를 메마르게 했고 우리는 언어를 잊었다"(Irena Klepfisz, *B* 76).

결국 작가로서 앙살두아는 이 모든 상황이 갖는 불합리함에 대해 고발하는 글을 쓰며, 표준 영어를 쓰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변절의 행위임을 고발한다: "*포초*(*Pocho*), 문화의 변절자여, 당신은 영어를 함으로써 정복자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스페인어를 망치는 것이다"(*B* 77).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언어는 조국이기 때문이다(*B* 77). 따라서 앙살두아는 침묵에서 목소리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나는 더 이상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가질 것이다: 인디언, 스페인, 그리고 백인의 목소리. 나는 나의 독사의 혀 — 여성으로서의 목소리, 나의 성적인 목소리, 시인으로서의 목소리 — 를 가질 것이다. 나는 침묵의 전통을 극복할 것이다"(*B* 81).

정리하자면, 앙살두아에게 있어서 언어는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치카나(chicana)

로서 그녀가 지닌 악센트를 제거하고 표준 영어를 구사하는 것은 치카나로서의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결국 앙살두아에게 있어 악센트 어린 야생의 혀를 길들이지 않고 그녀에게 강요되는 침묵의 요구를 거부하며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백인 여성으로서의 성적/인종적/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지키려는 저항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IV. 『여전사』: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번역하는 혀

> 아마도 그래서 엄마가 내 혀를 잘랐나보다. 엄마는 내 혀를 쭉 잡아당겨 소대를 잘라냈다. 아니면 손톱용 가위로 싹둑 잘라냈는지도 모른다. 또렷한 기억은 없고, 단지 엄마가 잘랐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알고 있을 뿐이지만, 어린 시절 내내 나는 손에 거울이나 칼을 준비해 놓고 아기새처럼 입을 크게 벌리기를 기다렸다 혀를 싹둑 자르는 엄마를 둔 아기들이 가여웠다. (*W* 163-4)

킹스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을 담고 있는 『여전사』의 마지막 단편「야만인의 갈대 피리를 위한 노래」(A Song for a Barbarian Reed Pipe)는 그녀가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엄마(Brave Orchid)가 혀의 소대를 잘라준 일화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 앙살두아의 『국경선』 식으로 풀이하자면 마치 야생마에 굴레를 씌우고 안장을 채우듯 야생의 혀를 길들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물리적 조치를 취한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외국어 혹은 악센트 있는 영어가 인종적 타자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혀 소대를 자르는 일은 탁월한 영어구사력을 지님으로써 주류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의 염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물리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킹스턴은 유창한 영어 발음은 고사하고 정작 목소리 자체를 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혀 소대를 자르는 일화는 결국 정상적인 목소리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혀 혹은 목소리의 문제가 결코 물리적 차원에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화자는 자신이 입을 떼는 데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지만, 어느 정도 극복했을 때 비슷한 처지의 말이 없는 한 중국 여자아이를 감싸주기보다 오히려 괴롭힌다. "넌 말을 하게 될 거야"(*W* 175)로 시작되는 괴롭힘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묘사된다.

> "너에겐 혀가 있잖아," 내가 말했다. "그러니 혀를 사용해야지." 나는 그 애의 관자놀이에 있는 머리칼을 잡아 당겨 눈에서 눈물을 쏙 빼주었다. "'아' 라고 해봐," 나는 말했다. "그냥 '아.' '놔 줘'라고 말해. 어서. 말하라구. 네가 '날 내버려 둬'라고 말하지 않으면, 난 다시 경적을 울릴 거야. [. . . .]" 그러나 그 애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그 애 머리를 잡아당겨야 했다. (*W* 178)

> "그리고 너, 넌 식물이야. 너 그거 알아? 네가 말하지 않으면 넌 그냥 식물이라구.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넌 아무런 개성도 가질 수 없어. 너는 개성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을 거야. 너에게도 개성과 뇌가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잖아. [. . .] 아무도 너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 . .] 내가 너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감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말해. 제발 말하라고." (*W* 180-1)

일곱 페이지에 걸쳐 매우 상세하게 소개되는 이 일화는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말없는 소녀는 소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화자 자신에 대한 거울 이미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한다는 명령은 화자 자신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일화는 이민 2세대로서 미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동시에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우화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백인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본국의 전통이 있고,[3] 이민과 관련하여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W* 184).[4]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려움을 겪었던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이 단편은 작가로서 킹스턴 자신의 자의식이 표출되면서 작가로서의 킹스턴이 글을 통해 목소리를 찾는 과정에 대한 암시로 마무리된다. 물리적 측면 즉 육성으로서의 목소리

가 갖는 의미는 비백인 작가로서 자기발화(articulation)가 갖는 사회적/정치적 의미로 확장된다. 결국 이전 챕터에서 논의한 앙살두아의 경우처럼 킹스턴 역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언어를 간직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백인 작가로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 사이를 번역하는 번역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킹스턴의 입장은 앙살두아와 분명한 차별지점을 갖는다.

한편, 『여전사』는 작품 외적으로 비백인작가로서 출신국가와 그 문화의 재현의 책임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논란 역시 결국 킹스턴의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문화 간 번역의 부재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여전사』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재현(representation)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들 — 특히 친(Frank Chin)의 혹평 — 은 아시아계 미국문학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신랄하다.[5] 비평가 리(Robert G. Lee)는 『여전사』를 둘러싼 논쟁적 비평을 언급하며 목소리와 재현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사실상, 『여전사』를 둘러싼 논쟁이 아시아계 미국인 연구 분야에서 가장 열띤 논쟁이라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있다: 우리의 경험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변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52) 리의 질문들은 앞서 본론 첫 챕터에서 논의한 서벌턴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의 책임에 관한 딜레마를 상기시킨다. 이러한 딜레마는 더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가 등장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킹스턴은 『여전사』의 첫 단편「무명녀」(No Name Woman)에서 우물에 빠져 자살한 고모에 관하여 함구하라는 역사적 침묵을 깨고 이야기를 소설로 풀어냄으로써 텍스트를 열고, 마지막 단편「야만인의 갈대 피리를 위한 노래」에서는 여류시인 채옌(Ts'ai Yen)이 중국 변방에서 망명이 부과한 침묵을 노래를 통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소개하며 텍스트를 닫는다. 채옌의 이야기는 중국의 뿌리를 간직한 채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 대한 훌륭한 우화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던 엄마와 화자의 목소리가 이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비로소 합쳐진다는 사

실이다: "여기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가 있다. 내가 어렸을 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라고 엄마에게 말씀드리자 최근에 해주신 이야기이다. 이야기 시작은 엄마가 하셨고 끝은 내가 썼다"(*W* 206). 채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냄에 있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역사와 허구가 뒤섞이듯 1세대와 2세대의 목소리도 융합된다.

『여전사』의 부제("유령들 사이에서 보낸 소녀 시절에 대한 회고")는 이 작품이 자서전/회고록 장르를 형식으로 취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번역의 역할과 매우 관계가 깊다. 자서전/회고록이라는 장르는 — 특히 『여전사』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훌륭히 보여주듯 — 결코 홑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평가 리는 자서전이라는 장르가 갖는 혼성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여러 목소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위에 대한 집착을 전복함으로써 자서전은 중국계 미국인의 역사가 갖는 모순들에 대한 권위를 포기하고 대신 이 모순들에 대해 열린 결말의, 언제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화적인 관계를 갖는다"(Lee 57-8). 이러한 다성적 목소리에서 역사에 의해 부과된 침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것이다(Lee 62).[6]

결국 『여전사』 마지막 부분에서 "번역이 잘 되었다"(*W* 209)는 구절의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흉노족 틈에서 갈대피리로 불렀던 채옌의 노래에 대한 중국적 수용에 대한 설명이지만 이는 『여전사』에서 킹스턴이 추구하는 "문화간/세대간 간극을 채우는 번역"에 대한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비평가 커터(Martha J. Cutter)에 따르면 번역은 서로 다른 영역 사이의 교차를 가능하게 만든다: "번역은 경계를 넘는다는 개념을 환기시키는데, 이는 별개의 불연속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화적, 언어적 실체 사이에 세워진 장벽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다"(581). 『여전사』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은 여러 층위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전통과 미국 문화 사이의 간극에 대한 번역과 동시에 이민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세대 차이에 대한 번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소 수동적 여성상을 보였던 채옌을 매우 능동적인 여전사이자 시인으로 다시 풀어낸 점 역시 문화 번역가로서 킹스턴의 훌륭한 점을 드러낸다(Cutter 606-7). 이렇

듯 번역을 통해 문화간, 세대간, 성별간 존재하는 간극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커터는 주장한다: “번역은 과거와 현재, 1세대와 2세대의 경험, 중국적인 것과 미국적인 것, 침묵당한 이야기와 말해진 현실, 그리고 때로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이항대립을 와해시킨다; 번역은 결국 발전하는, 유동적인, 통세대적이고 통문화적인 텍스트를 창출해 낸다”(608).

요컨대, 킹스턴의 『여전사』는 혀의 소대를 자르는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여 강제적으로 미국사회에 동화하고자 하는 이민 1세대들의 욕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본국의 전통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의 문화를 본국에 소개하는 두 문화 사이의 번역자 역할을 하는 비백인 작가의 역할을 제시한다. 결국 킹스턴의 『여전사』는 혀 혹은 목소리의 문제가 침묵과 발화 사이의 단순한 양자택일을 넘어서서 문화간, 세대 간 소통이라는 보다 복잡한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포』: 혀의 부재 혹은 침묵의 혀

『여전사』에서는 영어구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혀의 일부분인 소대를 자르는 장면이 언급되었다면, 반대로 『포』에서는 목소리를 거세하기 위해 완전히 혀가 잘린 인물이 등장한다. 쿠체의 『포』에 등장하는 프라이데이는 혀가 잘린 모습으로 주류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즉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서벌턴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동시에 백인의 언어 속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백인 중심으로 짜여진 질서 속에 포섭되지 않는 절대 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챕터에서는 혀의 부재 혹은 침묵을 지키는 혀가 지니는 양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앙살두아와 킹스턴의 사례가 증명하듯 혀는 반격과 저항 혹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번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독재자처럼 수잔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크루소에 맞서 수잔이 말대답을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혀를 지녔기 때문이다.

> "조금만 참았더라면 당신은 그보다 나은 신발을 얻었을 거요" 라고 그는 말했다. 이 말은 매우 그럴듯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샌달은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냥 참고 있었더라면 난 당신의 죄수가 됐겠죠" 하고 나는 말대꾸를 했다. [. . .] 크루소는 수년간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이 혼자만의 통제권을 누렸는데, 이제 그 영역이 침범당하고 어떤 여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는 내 혀의 고삐를 더 당기기로 맹세했다. (*F* 25)

프라이데이에게 혀가 없음을 소개하는 부분에 바로 뒤이어 수잔이 크루소에게 말대답을 하고 항변하는 장면이 병치된 것은 혀가 반항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잔에게 있어서 혀는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타인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는 저항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혀가 없는 프라이데이는 타인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표현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비칠 수 있고, 혀가 없는 것은 일종의 결핍으로 간주될 수 있다.

>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입을 열어"하고 말하며 자기 입을 열어 보였다. 프라이데이가 입을 열었다. "보시오," 하고 크루소가 말했다. 나는 쳐다보았지만 상아처럼 흰 번뜩이는 치아를 제외하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 . . "이 아이에겐 혀가 없소," 하고 크루소가 말했다. 프라이데이의 머리칼을 움켜쥐어 크루소는 그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왔다. "보이오?" 그는 말했다. "너무 어두워요," 하고 나는 말했다. . . . "이 아이에겐 혀가 없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요. 그들이 이 아이의 혀를 잘랐소." (*F* 22-3)

크루소는 프라이데이에게 혀가 없다는 사실을 수잔에게 알려주지만, 정작 누가 그의 혀를 잘랐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그들"(they)이란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노예를 사고파는 노예상들을 일컫지만 궁극적으로는 피부색이 검은 인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들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인식론적 폭력(epistemological

violence)을 휘두르는 담론 체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프라이데이가 혀를 잃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담론 체계로부터의 추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평가 맥레오드(Lewis MacLeod)는 프라이데이의 혀의 부재에 대해 색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우선 그는 『포』에 대한 비평들이 필요이상으로 이론적으로 난해함을 지적하며(2), 프라이데이에게서 혀를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비평가들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식인종의 존재가 흥미진진한 모험소설을 위한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듯, 혀가 없는 프라이데이의 존재는 탈식민주의 담론에 있어 비평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논문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 맥레오드의 설명이다: “소설의 비평가들은 그들의 담론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혀가 없는 프라이데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과장이 아니라, 그들은 그의 혀를 빼앗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10).

맥레오드의 주장은 앞서 본 논문의 본론 첫 장에서 논의한 서벌턴에 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데, 『포』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스피박과 패리는 다시 한 번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스피박은 혀가 없는 프라이데이의 존재는 식민주의가 어떻게 각인되고 피식민지인들을 침묵케 하는지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동시에 디포(Daniel Defoe)의 원작에 등장하는 프라이데이가 이미 잘 길들여진 성공적인 식민 주체(colonial subject)의 모습을 보여준 것과 달리, 쿠체의 프라이데이는 경계에 서 있는 자, 혹은 경계를 지키는 자(“the guardian of the margin” 15)를 상징한다고 분석한다. 반면 패리의 비평에 따르면, 쿠체의 작품은 철저히 유럽적 전통에 기대어, 식민화된 공간으로서 남아프리카가 갖는 정치적/역사적 의미는 모두 제거한 채, 오히려 저항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고 본다(“Speech” 152). 이렇듯 쿠체의 텍스트에 대한 비평을 통해 스피박과 패리는 다시 한 번 대립의 각을 세운다.

그런데 혀의 부재와 그로 인한 침묵을 단순히 결함으로만 볼 것인가?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프라이데이는 끝까지 간파되지 않는 인물로 남는 것이 아닐까? 맥레오드는 프라이데이가 말을 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내러티브의 재료로

전락하지 않음을 강조한다(6). 수잔이 갖는 답답함은 말을 하지 않는 프라이데이에 대한 해석불가능에서 온다. 영국으로 건너온 후 무료한 삶을 보내는 프라이데이를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수잔의 관심은 온통 프라이데이의 혀에 관한 진실을 파헤치는 데 쏠려 있다. 무인도에 관한 책을 쓰려면 최소한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혀를 잃게 되었는지 진실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혀는 부재한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프라이데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잔을 불안하게 한다: "내가 알기로, 이건 끔찍한 추락이다. 테라스 일이 없을 때면 하루 종일 거닐며 새알을 줍거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섬의 자유로부터 말이다. 그러나 분명히 지하실에서 하루 종일 혼자 누워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생각들을 하는 것 보다는 뭔가 쓸모 있는 일을 배우는 게 더 낫겠지?"(*F* 56) 수잔이 프라이데이에게서 느끼는 무력감은 식민화를 위해 도착한 현지에서 길이 없이 빼곡하게 나무가 들어 차 있는 밀림 앞에 선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매우 흡사하다. 결국 혀가 없는 프라이데이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 그림과 도구까지도 활용하는 수잔의 인도주의 이면에는 프라이데이가 어떻게 혀를 잃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캐냄으로써 무인도에 대한 책을 완성하려는 욕망과 그의 생각을 간파함으로써 그를 "알 수 있는 존재"로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

언어가 지배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수잔은 인정한다.

> 프라이데이를 어둠과 침묵으로부터 꺼내서 교육시키기 위해 그에게 말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내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게 진실일까? 마음이 여유롭지 못할 때면 그를 내 의지에 종속시키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서 말을 사용하게 된다. 그럴 때면 나는 왜 크루소가 프라이데이의 침묵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F* 60)

위의 인용은 언어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하는 한 주어로서 주체로서 발화자는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언어를 구사하는 한 우리는 언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 영원히 편입되고 종속된 존재일 뿐이다.

그 속에서 주체라는 개념은 한낱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쿠체는 말을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는 프라이데이를 통해 언어보다 우선하는 몸 혹은 실체가 갖는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듯하다.

수잔은 혀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자재로 피력할 수는 있지만 정작 작가 포(Foe)에게 섬의 실체를 보여줄 수 없음을 한탄한다(*F* 53). 그런데 수잔이 그토록 되찾고자 했던, 그리고 작가 포에게 상기시키려 했던 섬의 실체는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름 없는 화자에 의해 프라이데이의 입 속에서 발견된다.

>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입에 귀를 댄 채 누워 기다린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내, 내 심장 고동 소리만 무시할 수 있다면, 나는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노젓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녀가 말한대로, 소라에서 나는 파도 소리; 그리고 그 너머에, 마치 바이올린 현이 한 번 두 번 퉁겨지듯, 바람 소리와 새 울음 소리. [. . .] 그의 입에서는 숨소리 하나 없이 섬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F* 154)

이렇듯 말을 할 수 없는 혹은 하지 않는 프라이데이는 오히려 섬의 실체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런데 사실 프라이데이에게 혀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크루소의 불확실한 설명에 기대어 수잔이 내린 섣부른 결론일 수 있다. 만일 프라이데이가 혀를 지니고 있었다면, 오히려 프라이데이의 침묵은 그의 의지적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백인 질서에 대한 일종의 저항으로도 읽을 수 있다.[7]

정리하자면, 쿠체의 작품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이 오히려 강한 반항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혀의 부재는 결핍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혀를 가진 이가 갇히게 되는 언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오히려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포』는 침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말보다 몸이라는 실체가 갖는 의미를 강조한다. 혀가 없는 프라이데이의 입은 지배적인 담론체계에서는 일종의 구멍(hole)[8]으로 간주되지만,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 가장 완전한(whole) 존재성을 담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혀가 없는 프라이데이는 소설 속에서 화자로서의

수잔이나 포보다도 더 큰 존재감을 지니며, 그의 몸은 섬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유일한 실체를 이룬다.[9)]

VI. 결론: 혀/목소리를 넘어서서

바다는 또 다른 이야기
바다는 힘이 문제되지 않는 곳
그 깊은 곳에서
힘을 주지 않고도 몸을 돌리는 방법을
난 혼자서 터득해야 한다
[. . .]
내가 여기 온 이유:
난파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난파선 그 자체
난파선의 신화가 아니라 난파선 그 자체
태양을 향해 늘 응시하고 있는
익사한 자의 얼굴 (Rich 23-4)

쿠체가 『포』를 집필함에 있어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 더불어 영감을 준 텍스트는 "난파선 안으로 잠수하며"(Diving into the Wreck)라는 시다. 이 시는 바다 속 깊이 가라앉은 난파선 안으로 진입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입수에 대한 이론적 지침이나 난파선에 대한 온갖 추측이나 신화 따위가 아니라 난파선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익사한 시체의 얼굴과 죽은 눈의 응시라고 시인은 말한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말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고, 혹여 입을 벌려 말을 한다 해도 그마저도 깊은 바다 속이기에 어차피 해독불가능하다. 결국 정작 중요한 것은 재현불가능한 것이라고 시는 말하고, 쿠체는 이 시에서 받은 영감을 프라이데이라는 혀가 없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소설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벌턴은 말할 수 있는가?" 마지막 부분에서 스피박은 생리 중에 자살한 한 여인

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비록 혀와 성대를 사용하여 육성을 내지는 않았지만 생리 중에 자살한 여인의 몸은 그 자체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 어떤 형태의 발화보다도 강한 자기표현(articulation)이 될 수 있다. 스피박은 말할 수 없는 존재로서 서벌턴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이 여인의 생리하는 몸을 언급하지만, 사실 여인의 몸이 그 자체로 또 다른 차원의 "언어"를 이룬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은 앙살두아의 『국경선』, 킹스턴의 『여전사』, 그리고 쿠체의 『포』를 통하여 서벌턴에게 있어 목소리 혹은 침묵이 갖는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다. 『국경선』을 통하여 혀가 단순한 신체기관이 아니며 인종적/문화적 주체성과 실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의미와 직결됨을 알 수 있었고, 『여전사』를 통하여 자신의 차이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아와 타자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번역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인도의 실체를 담고 있는 『포』의 프라이데이를 통하여 침묵이 혀를 통한 목소리만큼 중요할 수 있음을 논의할 수 있었다. 물론 비평가 기첸(Julian Gitzen)이 지적하듯 침묵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에 침묵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역시 위험할 수 있다.[10] 그러나 서벌턴 존재 자체가 갖는 중요함과 위엄성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혀가 아닌 몸을 통한 표현, 혹은 침묵 자체가 갖는 의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자가 프라이데이의 입에 귀를 가져다 댐으로써 섬의 실체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서벌턴을 대변하여 말하기보다 서벌턴의 존재 자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Notes

1) 추후에 패리의 공격을 의식한듯 스피박은 『포』에 관한 논문에서 자신을 비롯한 탈식민 비평가들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옹호한 바 있다: "최근 논문에서 . . . 베니타 패리는 호미 바바, 압둘 잔 모하메드, 그리고 가야트리 스피박에 대해 해체주의로 무장한 채 원주민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그녀는 우리들도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우리들은 디포의 프라이데이처럼 말한다. 프라이데이보다 단지 말을 더 잘할 뿐"("Theory" 172).

2) 페미니즘 이론가인 민하(Trinh T. Minh-hà) 역시 타자를 대변하려는 지식인들에 대해 회의를 표한다: “문화인류학은 대개 ‘우리들’과 ‘그들’에 관한 ‘우리들’의 대화이다. 즉 원시-자연의 인간에 대한 백인과 백인 사이의 대화이고,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침묵된다. ‘그들’은 늘 나체이고 말이 없는 모습으로 언덕 저편에 서 있다. [. . .] ‘그들’은 ‘우리들’이 함께 동반하거나 소개하여 어떤 주제에 대해 논할 때만 ‘우리’ 가운데 편입될 수 있다. [. . .] 문화인류학이라 불리는 학문에서 원주민을 위한 공간은 없다; 대신, 그들의 땅과 문화에 대한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유포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할 뿐이다”(65, 67).

3) 배달 실수를 저지른 약사에게 사탕을 얻어오라는 엄마의 명령으로 약국에 갔지만,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해. 영어로 하라구”(W 170)라며 다그치는 약사 앞에서 “사사사사사 사탕 달라구요”(*W* 170)라고 말을 더듬을 뿐, 약이 잘못 배달되어 집으로 액운이 왔기에 사탕으로 액운을 막아야 한다는 중국 전통에 대한 설명을 어린 킹스턴은 끝내 하지 못한다.

4) 비평가 층(King-Kok Cheung)은 인종소수자로서의 여성의 위치에 대하여 “성차별과 인종주의, 그리고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혀가 없는 상태(tonguelessness) 속에서 권력의 주류에서 밀려나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고 언급한다(163). 또한 그는 유색인종에 대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침묵을 조장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차별은 맥신의 가족 가운데 침묵을 더 두텁게 만든다. 왜냐하면 맥신 가족의 비밀 성향은 아시안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이민 정책에 의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Cheung 164).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차원을 띄게 된다.

5) 친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The Most Popular Book in China)에서 킹스턴의 책이 결국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지적한다: “킹스턴과 황은 백인들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역겨운 부분들은 모두 중국적인 것이라는 백인의 환상을 확정지어준다”(28). 또한 친은 킹스턴의 작품 속에 그려진 중국은 실제 중국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녀가] 묘사하는 잔다르크의 모습은 . . . 너무나 부정확해서 그 항만 도시의 변두리조차 묘사하기 어렵다. 이 프랑스 소녀는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술을 쓰는 것이고, 그 책을 사랑한 중국인들은 ‘그녀가 자신의 개인 경험에 의해 인증된 상상력으로 작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24).

6) 비평가 층은 킹스턴의 『여전사』가 전투적 의미에서의 전사가 언어를 통한 투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화자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듣는 역할에서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화자로의 변신의 과정도 더불어 보여준다고 설명한다(171).

7) 비평가 맥레오드 역시 프라이데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의지적 차원의 결정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내 생각에는 프라이데이가 혀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하여 결과적으로 그의 침묵을 의도적 행위로 읽어내고, 프라이데이가 언어에 대한 의향 뿐만 아니라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7).

8) 작품 속에서 구멍 혹은 원의 이미지는 매우 풍부하게 활용되고 있다. 혀를 잃은 프라이데이의 입은 물론이고 프라이데이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려는 수잔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알파벳을 쓰는 대신 끊임없이 종이를 채우는 O의 행렬 또한 구멍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스피박은 이를 오메가(omega)라 해석한 바 있으며(“Theory” 15), 베감(Richard Begam)은 “신성

한 원"(a divine circle)을 의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MacLeod 13). 반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비평도 있으나, 쿠체 자신은 O, 원, 그리고 구멍 모두는 "남성의 권위적 언어가 전유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 설명한다(Parry, "Silence" 155). 결국 구멍(hole)이 단순한 결핍이 아닌 오히려 완전체(whole)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작품 전체를 응시하는 초월적 시선을 의미하는 침몰한 노예선을 바라보는 크라켄(kraken)의 눈 역시 구멍의 이미지로 묘사된다(*F* 140).

9) 비슷한 맥락에서 비평가 코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프라이데이의 완전한 침묵의 발화에는 저자가 억압된 자들에게 단순히 목소리를 거부한 것보다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 자신의 등장인물이 갖는 인간성에 . . . 작가로서의 존경이 부여되어 있다. 쿠체는 . . . 노예가 된 흑인을 대변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프라이데이에게 생명을 주지만, 쿠체 자신이 결코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구성할 수 없다고 믿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나 인내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프라이데이에게 사고나 발화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다"(재인용 Silvani 92).

10) 기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쿠체의 소설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듯, 선택에 의해서건 필요에 의해서건 말이 없는 자는 학대와 착취를 당할 수 있다"(15).

인 용 문 헌

Alcoff, Linda Martin. "The Problem of Speaking for Others." *Who Can Speak?: Authority and Critical Identity*. Ed. Judith Roof and Robyn Wiegman. Urbana: U of Illinois P, 1996. 97-119.

Anatol, Giselle Liza. "Speaking in (M)other Tongues: The Role of Language in Jamaica Kincaid's *The Autobiography of My Mother*." *Callaloo* 25 (2002): 938-53.

Anzaldúa, Gloria. *Borderlands/La Frontera: The New Mestiza*. 2nd ed. San Francisco: Aunt Lute Books, 1999.

Campblell, Neil, & Alasdair Kean. *American Cultural Studies: An Introduction to American Culture*. New York: Routledge, 2012.

Cheung, King-kok. "'Don't Tell': Imposed Silences in *The Color Purple* and *The Woman Warrior*." *PMLA* 103 (1988): 162-74.

Chin, Frank. "The Most Popular Book in China." Ed. Sau-ling Cynthia Wong. 23-28.

Coetzee, J. M. *Foe*. New York: Penguin Books, 1986.

Cutter, Martha J. "An Impossible Necessity: Translation and the Recreation of Linguistic and Cultural Identities in Contemporary Chinese American Literature." *Criticism* 39 (1997): 581-612.

Gitzen, Julian. "The Voice of History in the Novels of J. M. Coetzee." *Critique* 35 (1993): 3-15.

Herrera-Sobek, María. "Gloria Anzaldúa: Place, Race, Language, and Sexuality in the Magic Valley." *PMLA* 121 (2006): 266-271.

Kingston, Maxine Hong. *The Woman Warrior: Memoirs of a Girlhood among Ghosts*. New York: Vintage Books, 1989.

Lee, Robert G. "*The Woman Warrior* as an Intervention in Asian American

Historiography." *Approaches to Teachi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Ed. Robert G. Lee. New York: The MLA, 1991. 52-63.

MacLeod, Lewis. "'Do We of Necessity Become Puppets in a Story?' Or Narrating the World: On Speech, Silence, and Discourse in J. M. Coetzee's *Foe*." *Modern Fiction Studies* 52 (2006): 1-18.

Minh-hà, Trinh T. *Woman, Native, Other: Writing Postcoloniality and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P, 1989.

Parry, Benita. "Problems in Current Theories of Colonial Discourse." *Oxford Literary Review* 9 (1987): 27-58.

_____. "Speech and Silence in the Fictions of J. M. Coetzee." *Writing South Africa*. Ed. Derek Attridge & Rosemary Jolly. New York: Cambridge UP, 1998. 149-65. Print.

Rich, Adrienne. *Diving into the Wreck: Poems 1971-1972*. New York: Norton, 1973.

Sharpe, Jenny. "Figures of Colonial Resistance in Narratives of Colonial Resistance." *Modern Fiction Studies* 35 (1989): 137-55.

Silvani, Roman. *Political Bodies and the Body Politic in J. M. Coetzee's Novels.* Berlin: LIT, 2012.

Spivak, Gayatri Chakravorty.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London: Macmillan, 1988. 271-313.

_____. "Theory in the Margin: Coetzee's *Foe* Reading Defoe's *Crusoe/ Roxana*." *Consequences of Theory*. Ed. J. Arac and B. Johnson.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1. 154-80.

Wagner, Roi. "Silence as Resistance before the Subject, or Could the Subaltern Remain Silent?" *Theory, Culture & Society* 29 (2012): 99-124.

Wong, Sau-ling Cynthia, ed. *Maxine Hong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 Casebook*. New York: Oxford UP, 1999.

Abstract

"We're Going to Have to Do Something about Your Tongue": Problems of the Tongue/Voice in *Borderlands/La Frontera, The Woman Warrior*, and *Foe*

Kim, Kyoungsook (Anyang University)

This essay explores multivalent meanings of the subaltern's tongues/voices represented in Anzaldúa's *Borderlands/La Frontera*, Kingston's *The Woman Warrior*, and Coetzee's *Foe*. Since the wild tongue (to use Anzaldúa's symbol) is regarded as an indication for the racial other along with skin and hair color, the tongue's significances need to be interpreted in the discourses of race, ethnicity, and power.

Anzaldúa argues that to resist taming her wild tongue should be seen as a self-assertion of her identity as a chicana. In *The Woman Warrior*, cutting the frenum of the tongue reflects immigrants' desire to assimilate themselves into the mainstream American identity. However, by incorporating her own voice with many others, the genre of *The Woman Warrior* — a memoir/autobiography — does reverberate Kingston's desire to translate differences between cultures and generations. For Kingston, the tongue means a means not only of articulating her ethnic voice, but also of translating and thus embracing cultural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Lastly, Coetzee's Friday, the tongueless figure, fully embodies the island itself that Susan and Foe's narratives could not represent through language, and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silence can be as significant as speech.

Key Words: tongue, voice, silence, subaltern, postcolonialism

논문접수일: 2017. 08.28
심사완료일: 2017. 10.03
게재확정일: 2017. 10.10

이름: 김경숙
소속: 안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이메일: jjoyce10@anyang.ac.kr